

### 문제 1

1. 완벽한 답안입니다, 고칠점도 없고 매장의 차이로부터 죽음의 인식여부를 이끌어내고 또한, 고릴라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차이를 지니지만 관심은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끌어 낸 완벽한 답안으로 합격자중에서도 상위권 답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 다만, 하나 실수를 하셨는데 제시문 (나)와 (다)를 혼동해서 사용하셔서, 읽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 제가 올리는 답안에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실수를 하시면 정말 치명적이니 조심하시길!

### 문제 2

1. “실험1과 실험2 모두 배설물과 관련된 실험 집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더 적게 했다. 그러므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제한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나 아쉬운건 좋은 표에 대한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내며 근거를 서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 배설은 모든 생명의 특징이자 본능이다. 마찬가지로 배설에 관하여 인간 또한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이다. 그러므로 본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휘되던 인간만의 특수한 능력은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발휘되기 힘들다. 즉,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인간이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아주 창의적인 답안입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설이 인간의 본능이란 것 까지는 논리가 맞으나, 화장실에 가고, 배설물에 관한 단어를 듣는 것이 본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지가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나 단어를 접하는 인간들은 이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성향에 치우치게 된다. 즉, 본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더 완벽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최고의 논리입니다.
3. “나는 제시문[다]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배설물을 통해 떠오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다]에 나타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평 또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다)가 타당하지 않으면 (나)의 입장을 선택한 것인데, (다)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해 결론이 없습니다.
4. 최종적으로 1,2번 답안 모두 완벽합니다! 정말 좋은 답안으로 합격자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논평을 제외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논평은 논지가 부족하므로 큰 감점입니다.